

1833-9030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8년 7월 5일 목요일 (음 5월 22일) 제2081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주시, 국가예산 확보 '구슬땀'

전북 중기연수원 건립·드론 메카도시 조성 등
 김승수 시장, 국회·기재부 방문 국비지원 요청

김승수 전주시장이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과 드론 메카도시 조성 등 문화 번영과 경제 성장의 전주를 열어가기 위해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필요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전주시는 김 시장이 4일 오전 국회를 방문해 김수홍 예결위 수석전문위원과 김광수 의원(전주갑, 민주평화

당), 정운천 의원(전주을, 바른미래당), 정동영 의원(전주병, 민주평화당), 김관영 의원(군산, 바른미래당), 홍영표 의원(인천부평을, 더불어민주당) 등 전북지역 국회의원과 전복을 연고로 둔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김 시장은 벤처기업의 신규 창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문 연수원인 △전북 중소기업연수원 건립 사업 △전주 무형유산 진흥 복합단지 조성 △드론 메카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전주동물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세대통합형 국립예술키움센터 등 전주시의 성장·발전을 이끌 주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어필했다. 김 시장은 이어 오후에는 세종시로 자리를 옮겨 현재 각 부처에서 제출한

국가예산 부처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예산실 9개 부서를 방문, 예산심의관과 담당과장을 면담하고 전주시 주요사업 증액 및 반영을 위해 사업을 설명하며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 시장은 "기재부 심의가 마무리되는 오는 8월까지 상황변화를 주시하면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현안사업은 발 빠르게 움직여 적극적 설명과 함께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송호철 기자

"너무 시원해~"



장마가 떠나고 무더위가 찾아온 4일 전주시의 평균 온도가 영상 30도를 웃돌며 체감온도가 35도까지 올라 초여름 날씨를 보이던 가운데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천새암공원을 찾은 평화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전북도내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견

(작은빨간집모기)

전북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 유택수)은 4일 전북 1개 지역(전주)에서 4월부터 매주 2회 실시한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결과 6월 19일 채집 모기 중 1마리, 6월 25일 채집 모기 중 2마리의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를 발견함에 따라 일본뇌염 예방에 대한 주의의 당부했다. 일본뇌염은 제2군 법정 감염병으로 사람 간에는 전파되지 않으며, 일본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돼지를 모기가 흡혈한 후 사람을 무는 과정에서 감염된다.

지난달 채집 모기 중 2마리
 전북보건원, 뇌염 주의 당부

일본뇌염 바이러스의 주 감염계통은 12세 이하 아동 또는 60세 이상의 고령자이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지닌 모기에 물리면 대부분 증상이 없거나 열이 나는 정도지만 일부에서 고열, 두통, 경련 등 급성 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2017년도에는 전국적으로 9명의 일본뇌염 감염자가 발생하였으나 전북



작은빨간집모기

지역에서는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김진성 기자

예방을 위해서는 장마로 인한 고온 다습한 날씨 때문에 모기의 활동이 활발해 지고 있어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가정에서는 방충망(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야간에는 모기가 많은 지역의 야외활동을 가능한 자제하며, 불가피한 야외활동 시에는 긴 팔, 긴 바지 옷을 입고, 모기 기피제 등을 사용하는 것도 예방법이 되며 일본뇌염 백신을 접종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 유행예측 조사사업 중 4월 1일 부산에서 올해 처음으로 일본뇌염 매개모기를 확인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김진성 기자

과잉 공급 보리 농협전량수매 이끈 '산파'

평화당 김중회 의원

국회 김중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도당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제-부안)이 과잉 공급된 보리의 농협 전량 수매를 이끌어낸 산파 역할을 수행했다. 4일 김 의원에 따르면 농협은 2018년 산 보리가 3만 가량 초과 생산돼 관로 부재 및 가격 폭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급 과잉 보리에 대한 전량 수매 방침을 최근 확정했다. 수매 기간은 이달 말까지이며 특별 매입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 효과는 12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농협의 이번 조치로 보리 재배 농가



12만톤을 3만 가량 웃도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난 2월21일 김영록 당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상대로 "보리 파종면적이 전년 대비 123% 증가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면서 농협중앙

회를 통한 보리 전량 매입 등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보리 파종 면적의 폭발적 증가로 가격 폭락 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지난 5월 김제를 방문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에 과잉 생산된 보리를 농협이 전량 매입할 것을 요청하는 등 초과 생산된 보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방위 노력을 기울였다. 농협 양곡부서 관계자는 "김 의원이 과잉 생산된 보리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농식품부와 농협을 상대로 선제

적 대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특별매입을 결정하게 됐다"며 "이번 조치로 보리 재배 농가가 시름을 덜게 됐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메일 INDEX

- 2면 -전북도, 소규모 재생사업 선정
- 3면 -김제시 민선 7기 시장영양명향
- 16면 -전주 하가지구 및집 침범구이

한옥마을에 '쿨링포그 선풍기' 설치

연간 1000만명 이상이 찾는 전주한옥마을 내 주요 장소에 무더위를 식혀줄 '쿨링포그 선풍기'가 설치될 예정이다. 이 시설은 관광객들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시는 여름철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쿨링포그 선풍기 설치와 더위쉼터 운영, 얼음배치 등 다양한 무더위 해소 대책을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한옥마을 더위쉼터 운영 13개소 △주요 거점지역 쿨링포그 선풍기 설치 3개소 △한옥마을의 더위쉼터 위치 및 무더위상식을 담은 홍보부채 제공 △한옥마을 관광객 밀집지역 10개소 얼음 배치 △3개 주요노선의 살수차 전면 배치

△오목대 쉼터 내 천정형 선풍기 설치 등이다. 먼저, 시는 더위쉼터 위치와 시원한 실내천 등의 위치를 표시한 부채를 제작 배부해 이용률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시는 올해 처음으로 중앙초 사거리와 경기전 광장, 향교길 등 한옥마을 내 주요거점 3곳에 인공안개를 기화하여 주변온도를 3~5℃ 저감시키는 무더위 경감 시설물인 쿨링포그 선풍기를 설치한다. 이와 함께, 시는 관광객 밀집지역 총10개소에 얼음을 배치하고 살수차 운영노선을 확대하는 등 태조로와 향교길, 은행로의 기온을 조금이나마 낮추기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송호철 기자

제99회 전국체육대회
 THE 99th NATIONAL SPORTS FESTIVAL
2018.10.12.~18.
 익산 종합경기장 등 73개 경기장(전라북도 일원) 47개 종목(정식 46, 시범1)

JEONBUK 2018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THE 38th NATIONAL PARA GAMES
2018.10.25.~29.
 익산 종합경기장 등 33개 경기장(전라북도 일원) 26개 종목

아름다운山河 준비하는 생명의 삶터, 천년 전북!

주최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주관 전라북도 전라북도체육회 전라북도교육청 JBSA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KSPPO 국민체육진흥공단